



“숨 쉬는한 새로운 시도 계속 할 거예요”



‘파꽃 세상 밖으로’

첫 입체작품 도전한 ‘파꽃 화가’ 최향

녹색 줄기에 매달려 있는 파꽃. 꽃 치고는 아름답지도, 향기도 나지 않지만 수수한 매력을 지녔다.

약 20년 전부터 파꽃 매력에 빠져 회화 소재로 삼아온 서양화가 최향(여·64) 작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개최하는 개인전 ‘파꽃 세상 밖으로’에 처음으로 입체작품을 출품한다.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해 파꽃을 형상화한 작품 4점을 일반 회화작품과 함께 선보인다.

“죽기 전에 꼭 입체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작품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에 미칠 수 있는 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간혹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가 동양화 등 다른 장르로 전향하는 경우는 있어도 입체작업을 시도하는 일은 드물다. 매년 개인전을 열어온 최 작가는 평면으로만 그리던 파꽃을 다양하게 표현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조각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직접 작업을 하지는 못했다. 쇠를 자르고 용접하는 일은 숙련공들에게 맡겼다. 최 작가는 일일이 옆에서 지시하고 바라보며 작업을 할 계획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전시주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꽃 세상 밖으로’ 시리즈다. 높이 1m·둘레 50cm 작품 1점, 높이 80cm·둘레 40cm 작품이 3점이다. 평면 안 파꽃이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로 ‘세

20~29일 아트타운갤러리서 ‘파꽃 세상 밖으로’展

“힘들게 작업 하다보니 전통·모빌 아이디어 떠올라”



‘파꽃 일기’

상 밖으로’ 이름을 붙였다. “입체를 한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작품을 만들고 싶었지만 시간과 노력,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일일이 꽃잎을 재단해 용접해야하고 받

침대도 제작해야하고요. 비용도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 중간에 ‘그만둘까’ 생각도 들었어요. 막상 완성작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거예요.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떠올랐어요. 이걸 가지고 전등이나 모빌

을 만들어볼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예전부터도 회화에 질감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나이프로 유화 물감을 캔버스에 바른 뒤, 다시 조금씩 떠내면서 뾰족한 파꽃 모양을 표현했다. 이 기법을 지난 2011년 특허(메인팅 나이프)를 이용한 입체 문양의 형성 방법 및 이에 적용되는 페인팅 나이프)에 등록하기도 했다.

예술가는 항상 새롭게 도전해야한다는 신념을 지닌 그는 이번 전시에서 입체 외에도 새로운 기법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해까지 붓으로만 작업했는데 더 나아가 손가락으로 줄기를 그리고 그라데이션(전색)을 진하고 점점 엷어지는 채색 기법)을 표현했다.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매년 비슷한 작품을 보여주기 미안하더라고요. 특히 여성작가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작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그게 싫어요. 이번 전시가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생각이예요. 도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지난 2008년 서울 진화랑 초대전을 계기로 ‘파꽃 작가’로 주목받았다. 국내를 비롯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파꽃 작품을 전세계에 선보였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타임슬립 뮤지컬 ‘시간에’ 광주 공연

24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그 때 그랬어야 했는데...’ 누구에게나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시간에’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24일까지 평일 오후 7시23분, 토요일 오후 3시·7시23분, 일요일 오후 2시·6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지난 2008년 초연된 ‘시간에’는 제2회 DIMF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등 2관왕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며 500회 이상 공연됐고, 3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지수, 시한부 삶을 선고 받은 에스맨 명운, 돈을 좇는 소매치기 현실, 세 사람은 우연히 타임슬립 시계 판매원에

게 시계를 구입해 ‘다른 시간’으로 돌아간다.

지수는 사랑하는 남자를 처음 만났던 7시23분 그 때로 귀환하고 착하기만 한 명운은 첫 번째 기회의 순간으로 돌아가 꿈을 이루려 한다. 현실은 엄마를 찾아 미래의 어느 날로 떠난다.

‘타임 슬립’을 구현하기 어려운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음악과 다양한 연출을 가미했으며 미술과 협업을 통해 빠른 전환 등을 구사했다.

광주 출신 김병희씨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강원미·이환미·황정용·홍민기씨 등이 출연한다. 광주의 문화공방디케이이(주)가 제작을 맡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작이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술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경자씨와 재봉틀III-꿈을 찾아 나서는 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자씨와 재봉틀’은 50·60대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 사느라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몸의 반란(커뮤니티 댄스) ▲뫼타 폰 이야기들(역할극) ▲다 관촬야요, 토닥토닥(심리극) ▲꿈을

찾아 나서는 경자씨(1박2일 여행) ▲졸업 및 전시 등이다.

추말숙(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대표), 강동호(나답게 치유성장 연구소장), 신희홍(태이움직임 교육연구소장) 씨 등이 강사로 나서며 강의는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15일(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5시) 빛고를 아트스페이스까지 진행된다. 마감은 오는 5월 6일까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670-5763.

/김미은기자 mekim@



‘바람이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김엽 개인전 22일까지 조선대미술관

김엽 작가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조선대미술관에서 22일까지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물건들에 대한 의미를 회화, 사진, 설치 작품을 통해 이야기한다. 동시대 청년들과 같이 취업 스트레스를 겪는 작가는 쓸모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빠진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작품 소재로 삼으며 자신을 좁는다고 생각하고 위안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현대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작품에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스티로폼 박스 속 아재를 그린 ‘스티로폼 케일화본’, 일회용 커피용기를 표현한 ‘Take out SNOW’ 등은 모두 버려진 물건들이 소재다. 또 지하철에 기린, 곰 등 동물을 등장시킨 ‘바람이어’, ‘물이어’ 작품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주장한다.

그밖에 페스티로폼, 비닐, 새싹모형, 초, 플라스틱 조명을 조합한 설치작품 ‘버릴 수 없는 : 버려지지 않는’도 볼 수 있다.

김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학과,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근두근 고물고물’전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 판매도 가능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0 호남예술제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미술·작문 부문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의장상(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